

존 다브넨트(1572-1641)의 언약 신학: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범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효주

(정상어학원, 학원강사, 교회사)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초록]

존 다브네프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은 일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미랄두스 주의의 가설적 보편구원론(hypothetical universalism)의 선구자적 입장(proto-Amyraldianism)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 소논문은 아미랄두스 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카메론과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면서 다브네프의 입장이 역사적인 문맥으로 볼 때 17세기 정통 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17세기 초반 당시의 “가설적 보편구원론자”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다브네프는 이분론자(dichotomist)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카메론은 삼분론자(trichotomist)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다브네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다브네프에게 옛 언약(old covenant)은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메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다브네프와는 달리, 카메론은 자연 언약과 옛 언약(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별하였는데, 카메론의 율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 반면에, 다브네프는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이 복음적인 언약에 따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나타나며, 동시에 그분의 비밀스러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근거하여 아무런 실패없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예정과 언약의 조화를 설명했다. 언약에 관한 카메론의 신학이 17세기 당시에 이단적인 생각은 아니었지만,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이 도르트 신조의 입장에 더 가깝다.

키워드: 존 다브네프, 존 카메론, 언약신학, 속죄의 범위, 도르트 총회, 예정

논문투고일 2022.01.29. / 심사완료일 2022.03.02. / 게재확정일 2022.03.07.

1. 서론

존 다브네프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은 일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미랄두스 주의의 가설적 보편구원론(hypothetical universalism)의 선구자적 입장(proto-Amyraldianism)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¹ 그러나 다른 현대 신학자들은 다브네프가 아미랄두스 주의의 선구자라는 주장이나 도르트 총회에서 그가 항론파와 반항론파의 중간 입장(*via media*)을 취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² 과거에 학자들은 주로 다브네프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담은 그의 저서 *De Morte Christi*를 주로 언급하며 다브네프의 “가설적 보편구원론”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나, 최근에 학자들은 연구에서 다브네프의 폭넓은 저서들을 인용하며 예정(predestination)과 자유 선택(*free choice*), 그리고

1 Brian G. Armstrong, *Calvinism and the Amyraut Heresy: Protestant Scholasticism and Humanism in Seventeenth-Century France*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4); G. Michael Thomas, *The Extent of the Atonement: A Dilemma for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the Consensus (1536-1675)* (Carlisle: Paternoster, 1997); Curt D. Daniel, 'Hyper-calvinism and John Gill' (Ph.D., University of Edinburgh, 1983); Alan C. Clifford, 'Amyraldian Soteriology and Reformed-Lutheran rapprochement' in *From Zwingly to Amyraut: Exploring the Growth of European Reformed Traditions*, in Jon Balsarak and Jim West, eds. (Tüb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2 W. Robert Godfrey, 'Tensions within International Calvinism: The Debate on the Atonement at the Synod of Dort, 1618-1619' (Ph.D., Stanford University, 1974); Richard A. Muller, 'Davenant and Du Moul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12); Jonathan D. Moore, 'The Extent of the Atonement: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versus Particular Redemption'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in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ed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Michael J. Lynch, 'Richard Hooker and the Development of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in Scott N. Kindred-Barnes and W. Bradford Littlejohn, eds., *Richard Hooker and Reformed Orthodox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Oliver D. Crisp, *Deviant Calvinism: Broadening Reformed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14); Denlinger, Aaron Clay, ed., *Reformed Orthodoxy in Scotland: Essays on Scottish Theology 1560-1775*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Hyo Ju Kang, 'John Davenant, a Champion of the 'Via Media' at the Synod of Dort?', *Journal of Academic Perspectives*, Vol. 2017, no. 3, 1-24; Michael J. Lynch, *John Davenant's Hypothetical Univers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언약(covenant)에 관한 그의 입장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³ 그 중에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 연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의 입장은 예정과 구속의 범위, 자유 선택 교리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나단 무어(Jonathan Moore)는 존 오웬과 존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며, 오웬은 “영원한 작정, 구속의 언약(*pactum salutis*),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다브네프트는 “복음적인 언약(*pactum evangelicu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절대적인 언약보다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말한다.⁴ 무어는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이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로 대표되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잉글랜드 개혁파 언약 신학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언약의 조건성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율법화”시켰다고 비판했지만,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는 무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다브네프트가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 신학의 뒤를 이어서 타협이 없는 예정론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으로 구성된 정통 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⁵

3 Jonathan Roberts, ‘The Nature of God & Predestination in John Davenant’s *Dissertatio De Preadestinatione et Reprobatione*’ (Master of Arts in Philosophy,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2017); Michael J. Lynch, *John Davenant’s Hypothetical Universalism*, 132-146; David S. Systema, ‘Aquinas in Service of Dordt: John Davenant on Predestination, Grace, and Free Choice,’ in *Beyond Dordt and De Auxiliis* (Brill, 2019), 169-199.

4 Jonathan D. Moore, ‘The Extent of the Atonement: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versus Particular Redemption’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in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ed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143.

5 Jonathan D. Moore,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John Preston and the Softening of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7); Michael J. Lynch, *John Davenant’s Hypothetical Universalism*, 132, 140. 마이클 린치(M. J. Lynch)의 논문 6번째 장에서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린치는 다브네프트와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면서 다브네프트가 역사적인 정통 개혁파의 언약 신학 입장에서 벗어난다는 조나단 무어(J. D. Moore)의 입장을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의 논지는 다브네프트와 카메론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면서 다브네프트의 언약신학이 아미랄두스 주의를 언약 신학과 차이가 있음을 일차 자료를 근거로 증명함으로 다브네프트가 아미랄두스 주위의 선구자라는 주장을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브네프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퍼킨스나 다브네프 사후에 주로 활동했던 오웬의 언약 신학과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그의 입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브네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존 카메론(John Cameron)의 언약 신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카메론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아미랄두스 주의의 시조라고 불리는 존 카메론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과 다브네프의 입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⁶ 프란스 판 스타(F. P. Van Stam)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에 프랑스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가설적 보편구원론자들(*les hypothetiques*)”이라고 칭했던 신학자들은 소뮈르 아카데미의 신학자들을 의미한 것이었다.⁷ 두번째로, 17세기에 아미랄두스 주의 신학자들의 대적자로 여겨졌던 라이덴(Leiden) 대학의 신학교수, 안드레 리베(Andrè Rivet)는 그의 루터란 동료, 헤르만 힐데브란드(Herman Hildebrand)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와 유기 교리에 관한 다브네프의 글을 읽어보고서 그의 견해에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했다.⁸ 세번째로, 다브네프는 솔스베리의 주교로 활동하고 있을 때, 프랑스

6 Gaston Bonet-Maury, *John Cameron: a Scottish Protestant theologian in France (1579-1625)* (Glasgow: MacLehose, 1910), 344. '이러한 (카메론의) 재능으로 모이 아미로 (M. Amyraut), 델라 플라쎬(De la Place), 폴 테스타드(P. Testard), 사무엘 보카르트(S. Bochart)와 같은 열정적인 제자들을 얻었다. 카메론은 소뮈르 학파의 진정한 설립자(true founder)였다.'

7 Frans Pieter Van Stam, *The Controversy over the Theology of Saumur, 1635-1650: Disrupting Debates among the Huguenots in Complicated Circumstances* (Amsterdam & Maarsse: APA-Holland University Press, 1988), 277. 네덜란드의 특사 자격으로 다브네프와 함께 도르트 총회에서 6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히스베리투스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는 그의 저서에 기록한 가설적 보편구원론자들의 명단에서 헤탈두스 포시우스(Gerardus Vossius), 브레멘 특사로 총회에 참석했던 루드빅 크로키우스(Ludwig Crocius)와 소뮈르 신학자들만 언급되고 다브네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푸치우스의 *Gisberti Voetii Theologiae in Acad. Ultrajectina Professoris, 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Pars Secunda* (Ultrajectina: Johannem a Waesberge, 1655), 251-255를 참고하라.

8 Herman Hildebrand, *Orthodoxa Declaratio Articulorum Trium: De Mortis Christi Sufficientia et Efficacia, Reprobationis Causa Meritoria, Privata Denique Communionem, Conscio & instante venerando ministerio Bremensi, pro sopiendis inter quosdam collegat hinc exortis controversiis concepta, & in eodem collegio ann. 1639. d. 4. & 3.* (Bremae: Typis Bertholdi Villieriani, 1642), 39; Michael J. Lynch,

의 신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존 카메론의 신학적 입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짧은 문서(short tract)인 *De Gallicana Controversia Sententia* 를 기록했다.⁹ 이 문서에서 다브네프트는 구속의 범위에 관한 카메론의 입장을 비판했다.¹⁰

카메론과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면서 다브네프트의 입장이 역사적인 문맥으로 볼 때 17세기 정통 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17세기 초반 당시의 “가설적 보편구원론자”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르트 총회에 영국의 특사로 참석했던 다브네프트가 총회 기간동안에 언약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브네프트의 언약신학이 설교자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의 특징을 분석하고, 카메론의 언약 신학의 특징과 비교, 대조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겠다.

II. 본론

1. 다브네프트의 이중적인 언약

‘Richard Hooker and the Development of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in Scott N. Kindred-Barnes and W. Bradford Littlejohn, eds., *Richard Hooker and Reformed Orthodox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277.

9 John Davenant, ‘*De Gallicana controversia D. Davenantii sententia*’, appended to *John Davenant, Dissertatio de morte Christi... quibus subnectitue eiusdem D. Davenantii Sententia de Gallicana controversia: sc. De Gratiosa & Salutari Dei erga Homines peccatores voluntate* (Cambridge: Roger Daniels, 1683).

10 다브네프트의 *De Gallicana Controversia Sententia*의 내용 분석과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연구는 Richard A. Muller, ‘Davenant and Du Moul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12), 136-144; Richard A. Muller, ‘Dating John Davenant’s *De Gallicana controversia sententia* in the Context of Debate over John Cameron: A Correction’, *CTJ* 50 (2015), 10-22을 참고하라.

존 다브넛트(John Davenant)는 1572년에 런던에서 태어나서 1587년부터 캠브리지 대학의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에서 교육을 받았다.¹¹ 1594년부터 퀸즈 칼리지에서 가르쳤고, 1609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레이디 마가렛 신학 교수를 역임하고 1614년에는 퀸즈 칼리지 학장으로 임명받았다.¹² 그 후, 다브넛트는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있었던 도르트 총회에 영국의 특사들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¹³ 그 후에 1621년부터 1641년까지 잉글랜드의 솔스베리(Salisbury)의 주교(Bishop)로 섬기다가 생애를 마감하였다.¹⁴ 비록 언약에 관한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교리는 존 다브넛트의 다양한 저서들에 자주 언급되었고 그의 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¹⁵ 그래서 무어는 다브넛트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11 Josiah Allport, 'Life of Bishop Davenant' in John Davenant, *Colossi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2005), ix; 이제부터 Banner of Truth가 출판한 다브넛트의 골로새서 주석의 인용은 *Colossians*, [ix]와 같이 표현할 것이다.

12 Allport, *Life of Bishop Davenant*, x-xi

13 Edward Davenant, 'Oxford Exeter College MS 48' (Dordrecht, 1618), 4. 존 다브넛트의 조카, 에드워드 다브넛트의 기록에 따르면 다브넛트와 그의 일행은 도르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618년 10월 8일에 캠브리지에서 길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입국했다. '1618 Octobris 8. On Thursday we set from Cambridge, and before dinner came to the court at Roiston'. 다브넛트와 영국 대사들의 총회 참석에 관해서는 Anthony Milton,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105-107을 참고하라.

14 Allport, *Life of Bishop Davenant*, xlv. 솔스베리 대성당 안에 있는 다브넛트의 기념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Synodo Dordracensi magna pars interfuit, Tnadem hujusce Diocaeseos Sarib^{os}. Episcopus Anno 1621 die Novembris VIII consecratesest.'

15 이 소논문에서는 주로 존 다브넛트의 *De Morte Christi*와 *De Justitia*, 그리고 그의 설교를 주로 인용하였다. John Davenant, 'De Morte Christi', in Thomas Bedford, ed., *Dissertationes Duæ: Prima de Morte Christi, quatenus ad omnes extendatur, quatenus ad solos Electos restringatur. Altera de Prædestinatione & Reprobatione ... Quibus Subnectitur Ejusdem D. Davenantii Sententia de Gallicana Controversia: Sc. de Gratiosa & Salutari Dei Erga Homines Peccatores Voluntate* (Cambridge: Roger Daniel, 1650); John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Weston Rhyn: Quinta Press, 2006); John Davenant, 'Disputatio de Justitia Habituali et Actuali' in *Praelectiones de duobus in Theologia controversis capitibus de Indice Controversiarum* (Cambridge, 1631); John Davenant, *A Treatise on Justification* (London: Hamilton, Adams, 1844); John Davenant, *One of the Sermons Preached at Westminster* (London: Richard Badger, 1628)

관해서 제임스 어셔(James Ussher)의 입장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셔의 입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의 주해적이고 논리적인 바탕을 견고하게 했다”고 말한다.¹⁶

다브네펬트의 언약신학은 이중적인 언약(*pactum duplici*)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편적인 복음의 부르심(*universal gospel call*)에 관한 다브네펬트의 입장에서 “복음적인 언약(*evangelical covenant*)”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고 말하면서, 복음적인 언약에 대해서 다브네펬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성립된 복음적인 언약(*foedere Evangelico*)은 사도들이 온 세상에 선포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아직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만약 예서가 메시아를 믿었다면, 예서도 야곱처럼 구원받았을 것이다. 만약 야곱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면, 야곱도 예서처럼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¹⁷

그리고 다브네펬트는 또 다른 종류의 언약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럽고도 절대적인 작정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성립된 “새 언약(*Novi foederis*)”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기보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pactum*)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¹⁸

16 Jonathan D. Moore, ‘James Ussher’s Influence on the Synod of Dordt’, in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Leiden, Boston: BRILL, 2010), 173.

17 ‘*In hoc igitur foedere Evangelico morte Christi stabilito, quod Apostoli toti mundo divulgarent, & Ministri Evangelici etiamnum praedicant, nulla personarum ratio habetur. Tam Esavus servabitur, si crediderit in Messiam, quam Jacobus: tam Jacobus damnabitur, si non crediderit, quam Esavus.*’ See Davenant, ‘De Morte Christi’, 39;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74; Colossians [2:404].

18 Davenant, ‘De Morte Christi’, 39;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다브네프의 설명에 따르면, 복음적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절대적인 언약이다. 다브네프는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인용하였다.¹⁹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적인 언약이라는 개념은 도르트 총회에서 영국 대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아티클에 관한 소고”에서 다브네프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인간의 구속을 위해 복되신 삼위일체께 자신을 올려드렸다. 이 단번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차별없이 진중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적인 언약이 만들어지고 확증되었으며 승인되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Quicumque credit, salvabitur. Si tu credis [or crederes], salvaberis.*)²⁰

영국 특사들의 “의견서(*Judicium*)”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에서 복음의 보편적인 약속이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바로 그 약속이다.²¹

74: Colossians [405]. *Veruntamen fatendum est, aliam quoque esse Dei ordinationem arcanam & absolutam, certas quasdam & definitas personas spectantem, & in morte Christi etiam fundatam, quae Novi foederis nomen sortitur. Sed hoc potius inter Deum Patrem & Christum quam inter Deum & nos pactum intelligitur.* 다브네프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foedus와 pactum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19 Davenant, ‘De Morte Christi’, 74;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74; Colossians [405].

20 Davenant et al., ‘MS Rawlinson C849’, 278”; John Davenant, ‘Doctour Davenant Touching the Second Article, Discussed at the Conference at the Haghe of the Extent of Redemption’, in Anthony Milton, ed.,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218-219.

21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V CHRISTI, Autoritate*

도르트 총회에서 영국 특사들은 사도행전 10장 43절, 로마서 3장 24-25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인용하며 위의 명제를 뒷받침하였다.²² 그리고 그 복음적인 약속이 반드시 “(물론 모든 시간과 장소를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다브넛트는 두 가지의 언약을 언급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조건적인 언약(revealed conditional covenant)이다. 이 언약에 따라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²⁴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불평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혹은 뜻)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언약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절대적인 언약(secret absolute covenant)이다. 택자들에게 믿음을

ILLVSTR. ET PRAEPOTENTVM DD. ORDINVM GENERALIVM FOEDERATI BELGII PROVINCIARVM, DORDRECHTI HABITAE ANNO 1618 ET 1619. Accedunt Plenissima, de Quinque Articulis, Theologorum Judicia. (LVGDVNI BATAVORVM: Typis ISAACI ELZEVIRI, Academiae Typographi, Societatis DORDRECHTANAE sumptibus, 1620), II: 79; Davenant et al., 'MS Rawlinson C849', 278'. 'In hoc merito mortis Christi fundatur universale promissum Evangelicum juxta quod omnes in Christu[m] credentes, remissionem peccatorum et vitam aeternam reipsa consequantur.'

- 22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4-2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 23 *Acta Synodi Nationalis*, II: 79; John Davenant et al., *The Collegiat Suffrage of the Divines of Great Britaine, Concerning the Five Articles controverted in the Low Countries. Which Suffrage was by them delivered in the Synod of Dort, March 6 Anno 1619. Being their vote or voice foregoing the joint and publique judgment of that Synod.* (London: Printed for Robert Milbourne, 1629), 48.
- 24 W. Robert Godfrey, 'Tensions within International Calvinism: The Debate on the atonement at the Synod of Dort, 1618-1619' (Ph.D., Stanford University, 1974), 183 n.22. 갓프리는 말하기를, '다브넛트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조건적인 언약을 실제로 맺으셨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알려졌기 때문이다.²⁵ 다브네프는 우리가 조건적이고 드러난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실패 없이 영생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²⁶ 그러면서 다브네프는 이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만약 후자를 약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손가락으로 누가 택자이고 누가 택자가 아닌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증보자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라고 이해되는 후자의 언약(절대적인 언약)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전자의 언약(조건적인 언약)이 사람들의 사악함과 불신으로 인해 헛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존귀한 보혈이 헛되이 흘려진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후자의 언약을 통해 택하신 이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자의 조건적인 언약을 전하고 권하는 것이다.²⁷

25 Davenant, 'De Morte Christi', 39;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74; Colossians [2:405].

26 Davenant, 'De Morte Christi', 39;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74; Colossians [2:405].

27 'Hoc enim perinde esset ac si profiteremur, nos fuisse Deo a consiliis ante jacta mundi fundamenta, & posse electos ac non-electos digito demonstrare. Absque hoc posteriore foedere quod magis proprie inter Deum & Mediatorem, quam inter Deum & Homines stabilium intelligitur, illud prius conditionatum humana improbitate & infidelitate in omnibus hominibus irritum foret, & ille pretiosus atque infiniti meriti sanguis in inane diffluet. Veruntamen quia, ut dictum est, Solus Deus novit eos ad quos hoc foedus spectat, nostrum est illud prius conditionatum foedus, nobisque revelatum urgere & premere.' See Davenant, 'De Morte Christi', 39; 조사이 아 알포트(Josiah Allport)는 다브네프의 콜로새서 주석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훌륭하게 번역했다. 그러나 여기에 알포트의 번역에 오류가 한 가지 있다. 알포트의 번역에 따르면 'Absque hoc posteriore foedere quod magis proprie inter Deum & Mediatorem, quam inter Deum & Homines stabilium intelligitur'이라는 구절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고 더 분명히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과 증보자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See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74; Colossians [2:405].

비밀스럽고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적인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권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다브네프트는 절대적인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으로부터 구별하였다. 벨코프에 따르면, 17세기의 전형적인 정통 개혁파의 은혜 언약에 관한 입장은 두 종류의 언약, 즉 조건적인 은혜의 언약과 선택을 통한 절대적인 언약으로 구별된다.²⁸ 다브네프트는 은혜의 언약을 이러한 두 종류의 언약으로 구별했던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²⁹

2.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의 특징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다브네프트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의 첫번째 특징은 그가 말하는 절대적인 언약(*absolute covenant*)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이다. 다브네프트는 구속의 사역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다고 말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온 세상의 구속자요,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름을 주셨다.³⁰ 여기서 다브네프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 언약(*pactum salutis*)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리처드 물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다브네프트가 말하는) 이 언약(*pactum*)은 17세기 이후의 신학자들이 정의하듯이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언약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2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96), 284-285.

29 다브네프트의 이중적인 언약(절대적, 조건적-복음적 언약) 개념이 17세기 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소논문의 제한된 지면에 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상혁, 『언약신학』, 37-45, 93-170을 참고하라.

30 Davenant, 'De Morte Christi', 19;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38; Colossians [2:360].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³¹

조나단 무어는 말하기를, “1620년대에 다브네프가 구속 언약(*pactum salutis*)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anachronistic) 생각이다. 그러나 만약 다브네프가 누군가에 의해 어떤 형태의 구속 언약(*pactum salutis*)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다브네프는 아마도 성자께서 믿음(성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믿음)을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언약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맺으셨다고 말할 것이다.”³² 흥미로운 것은 다브네프가 언약의 개념을 사용한 방법이다. 다브네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인류를 위해 주어진 희생제물이 틀림없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기로 성부께서 성자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것은 가장 공의롭지 못한 언약이었을 것이다.³³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개념은 성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31 Muller, 'Davenant and Du Moulin', 138. "This pactum... is not defined as an eternal covenant grounding the covenant of grace, as later theologians would define it, but as the basis of the universal preaching of the gospel and of the promise of salvation to all who would believe, as agreed upon by the Father and the Son."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에 관한 다브네프의 입장에 대한 물리의 또 다른 보충 설명은 Davenant, *De Gallicana controversia D. Davenantii sententia*, 288을 참고하라.

32 Moore, *The Extent of the Atonement*, 142 n.82.

33 Davenant, 'De Morte Christi', 25;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50-51; Colossians [2:375]. 'ad hoc respondeo, Esset hoc quidem iniquissimum, ... si ipse Deus pactus fuisset cum Christo moriente, velle se omnibus & singulis fidem infundere, caeteraque omnia donare quae spectant ad infallibilem hujus hostiae pro humano genere oblatae applicationem.'

형벌로부터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묶어 놓으시는 언약을 성자와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브넛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 가지 비유를 들었다.

어떤 왕에 의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빛을 진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혹은 커다란 반역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하지만 그 왕은 자신의 아들이 이 빛을 모조리 갚고 모든 빛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혹은 아들이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정해 놓았다. 오직 왕의 아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왕과 왕자에 의해 공포되었다.³⁴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다브넛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만약 왕의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풀려나지 않고 형벌을 받는다면, 왕자가 대신 빛을 갚고 난 후에 그들에게 빛을 다시 청구한다고, 혹은 왕자가 대신 형벌을 받은 후에 이 반역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왕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³⁵ 그리고 다브넛트는 이런 결론을 도출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빛을 대신 갚는 것이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왕자에게 복종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³⁶ 이와 같이

34 Davenant, 'De Morte Christi', 26;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51; [Colossians, 2:376-377]. *'Similitudine haec omnia illustremus: Cogitate innumeros homines ob ingens debitum in carcerem a Rege aliquo coniectos, vel ob crimen laesae Majestatis capite damnatos: ipsum autem Regem procurare ut filius suus ad extremum assem hoc totum debitum dispungat, vel pro istis proditoribus se reum supponat, poenasq[ue]; omnibus debitas sustineat, promulgata ab utroque tamen hac lege Neminem absolvendum aut liberandum esse extra eos solos qui hunc Regis Filium pro Domino suo legitimo agnoscere, illique inservire volunt.'*

35 Davenant, 'De Morte Christi', 26;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51-52; Colossians [2:377].

36 Davenant, 'De Morte Christi', 26;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51-52; Colossians [2:376-377].

다브네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다브네프가 그의 저서의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였듯이,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절대적인 의도(special absolute intention of God)는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universal conditional covenant)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³⁷ 이러한 논리는 언약에 대한 다브네프의 또 다른 생각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다브네프의 언약신학의 두번째 특징으로, 절대적인 언약에 관한 다브네프의 생각은 그가 강조하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조건적인 복음적 언약(*foedus Evangelicum*)과 연관되어 있다.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에서 복음적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조건적인 언약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복종(obedience)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자연 언약(*foedus naturae*)”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인 “은혜 언약(*foedus gratiae*)”이다.³⁸ 자연 언약에 대해서 다브네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procurable) 작정해 놓으셨지만,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really) 그 언약으로 인해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한다.³⁹

37 Davenant, 'De Morte Christi', 105;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197; Colossians [2:555-556].

38 Davenant, 'De Morte Christi', 20-21;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41; Colossians [2:364].

39 Davenant, 'De Morte Christi', 21;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41; Colossians [2:364]. 'Porro, sicut in primo foedere Deus, qui ordinavit salutem ut parabilem Adamo & posteris ejus, non tamen praedestinavit ut vel ipse Adamus, vel ullus ex posteris ejus per illud foedus reapse salvaretur.'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다브네프트가 “자연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다는 것이다. 칭의에 관한 그의 저서(*De Justitia*)에서 다브네프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율법적인 언약(*pactum legale*) 혹은 행위 언약 (*foedus operum*)에 따르면 영생의 약속은 참으로 조건적이라서 율법을 완벽하고 철저히 지키느냐에 영생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위한 공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언약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복음적인 언약(*pactum evangelicum*)과 은혜 언약(*foedus gratiae*)에 따르면 영생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조건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신의 언약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성취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져 있다.⁴⁰

존 카메론과는 다르게, 다브네프트는 17세기 후반의 개혁파 신학자들처럼 “행위 언약(*foedus operum*)”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여기서 행위 언약은 하인리히 헤페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의 조건을 요구한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래의 거룩함과 완전한 복종과 의로움이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의 실패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⁴²

40 Davenant, *De Justitia*, 407; Davenant, *A Treatise on Justification*, 1: 305.

41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122.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과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Mark Jones, ‘The “Old” Covenant’, in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eds., *Drawn Into Controversy: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184–185. 마크 존스가 말했듯이,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텐 동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기술하는 행위 언약의 유래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Tracing the origin of the covenant of works proves particularly hard given that Reformed theologians each had their own preferences for describing the nature of the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in the garden.)’

42 Heinrich Hepp,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이와 같이 언약에 관한 다브넛트의 입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분론자(dichotomist)”라고 할 수 있다.⁴³ 첫번째 이유는 언약에 관한 다브넛트의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했던 그의 설교를 보면, 은혜 언약에 관해서 다브넛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창세기 17장 7절을 인용하며, 다브넛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언약[은혜 언약]에 관해서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할례라는 인을 치실 필요가 있었다... 이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분의 특별한 유산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유대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세례가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이다. 세례를 통해서 복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례받는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보호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다.⁴⁴

in Ernst Bizer, e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283. 하인리히 헤페는 행위 언약이 종종 자연 언약(covenant of nature)이라고 불리워졌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가락에 의해 사람의 마음에 처음부터 새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43 ‘이분론자(dichotomist)’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두 가지 구조를 주장하고, ‘삼분론자(trichotomist)’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생각한다. 다브넛트가 이분론자였다면, 존 카메론은 삼분론자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있었던 ‘이분론자’와 ‘삼분론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Jones, “The ‘Old’ Covenant”, 183-203을 참고하라.

44 John Davenant, *One of the Sermons Preached at Westminster* (London: Richard Badger, 1628), 44-45. 다브넛트의 설교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further ratification of this covenant, God would needs haue the seale of circumcision put vnto it. ... In respect of this speciall Couenant, God claimed the Iewes for his speciall inheritance & peculiar people; ... Now as God was by a speciall couenant God of the Iewes vnder the Old Testament, so now he is become God of the Christians vnder the New. Our Baptisme is the sealing of this Couenant, wherein the blessed Trinity, Father, Sonne, and Holy Ghost, receiue the party Baptized into speciall fauour and protection.’ 참고로, 인용구절에서 대괄호 안의 단어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내용이다.

다브네펀트에게 이 특별한 언약, 즉 은혜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관통하는 언약인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가 그 언약의 보증(seal)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 언약의 보증이 바로 세례이다.

다브네펀트가 언약신학의 이분론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율법을 은혜 언약의 집행 수단(administration)으로 여기었기 때문이다.⁴⁵ 그의 골로새서 주석(*Ad Colossenses*)에서 다브네펀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칭의는 율법의 교리에서 찾을 수 없고 율법의 가르침에 담겨있지 않다. 복종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명령을 성취한 것에 대한 대가로 칭의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이 우리는 율법적인 언약(pacto legali)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형벌로 칭의를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보다 지옥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복음, 즉 은혜의 약속(*promissionibus gratiae*)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⁴⁶

우리의 칭의는 율법의 언약에서 얻을 수 있지 않고 은혜의 약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흡사하게, 그의 칭의에 관한 저서(*De Justitia*)에서 다브네펀트는 이렇게 말했다. “율법적인 언약(*pactum legale*)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복종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을 돕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은혜(*gratia evangelica*)이다.”⁴⁷ 그러나 다브네펀트가 언급한 “율법적인 언약”은

45 Jones, ‘The “Old” Covenant’, 189. 마크 존스는 종교개혁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모세의 언약(Mosaic covenant)을 은혜 언약의 집행 수단(administration)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46 Davenant, *Ad Colossenses*, 26; Davenant, *Colossians (Banner)*, [63].

47 Davenant, *De Justitia*, 252; Davenant, *A Treatise on Justification*, 1: 70. ‘nam pactum legale requirit omnibus numeris exactam obedientiam: gratia autem evangelica est quae subvenit imperfectae nostrae obedientiae, & a maledicto legis nos liberat, ut

“복음적인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의 설교에서 다브네프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의 황금 사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그분께 묶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경외심(fear)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love)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슬이 우리를 복종으로 묶어 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슬로 묶어 놓지도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⁴⁸

다브네프에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황금 사슬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브네프가 말하는 은혜 언약에 따르면 율법은 복음의 집행 수단(administration)이기 때문이다. 그의 설교에서 다브네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언약[은혜 언약]의 성격에 의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며 모든 위선을 멀리하고 모든 배교를 미워한다. 그의 행복은

aperte concludit apostolus ad Rom. 3. vers. 19, 20, 21, &c.’ 여기서 다브네프는 로마서 3장 19-21절을 인용하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⁴⁸ Davenant, *One of the Sermons Preached at Westminster*, 32. ‘The pleasant golden chaine of Gods speciall loue and mercy, which in speciall manner tied these Israelites vnto him. (Our God.) He that acknowledgeth God to be the vniuersall and Omnipotent Lord ouer all the world, feare should driue him to obey his commands. He which beleeueth him to be His God, loue should draw him to obey his commands. He whom this double chaine cannot binde vnto obedience, is in a farre worse case then that Demoniack in the Gospell, [Marke 5.3.] Whom no man could binde, no not with chaines.’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참으로 지키는 것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회개와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로 이 언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순복하고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랑으로 자비롭게 받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⁴⁹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 언약을 참으로 지키는 것에 의존되어 있다. 즉,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다브넨트의 언약신학의 세 번째 특징은 조건적인 언약(conditional covenant)이 절대적인 언약(absolute covenant)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브넨트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procurable)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예정하지는 않았다고 믿는다.⁵⁰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다브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첫번째 언약[자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에서 그랬듯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번째 언약[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혈이 헛되이 흘러져

49 Davenant, *One of the Sermons Preached at Westminster*, 48. 'But let euery man that by vertue of the Couenant calls God his God, detest all hypocrisie, abhor all treachery; and remember that his happinesse depends not vpon the entring into a Couenant with God, but vpon the true keeping of the Couenant. And for the more effectuall stirring vp of euery man here present to repentance and newnes of life, according to the tenor of the Couenant, I wil adde this one thing. That whatsoever our carriage hitherto hath been, this very Couenant may assure vs, that Our God, and Our Father, neither will nor can refuse graciously to accept vs into faour, vpon our submission and amendment.'

50 Davenant, 'De Morte Christi', 21;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41; Colossians [2:364]. *'ita Deus, qui in secundo foedere ordinavit salutem ut omnibus parabilem sub conditione fidei, non tamen praedestinavit fidem hanc dare omnibus & singulis, qua infallibiliter salutem consequerentur.'*

서 아무도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 깊고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특별한 자비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셔서 실제로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다.⁵¹

그들 자신의 자유 선택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택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서 반드시 그들이 믿음과 영생을 얻어서 보편적인 언약이 아무에게도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⁵² 그러므로 절대적인 언약에서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는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pactio conditionato*)과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이다.⁵³

도르트 총회의 영국 특사들의 입장도 다브넛트의 입장과 일치했다. 도르트 신조의 두번째 주제인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들의 의견서의 다섯번째 아티클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은 복음적인 언약을 확립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셨다. 그 은혜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거나 그 은혜를

51 Davenant, ‘De Morte Christi’, 21;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41; Colossians [2:364]. ‘*Ne tamen diffluet sanguis Filii Dei, & vitio humani arbitrii idem eveniret in secundo foedere quod evenerat in primo, nempe, ut ejus beneficio nemo frueretur, agitavit Deus apud se altius & secretius consilium, atque statuit ex mera & speciali misericordia quibusdam donare ut praedictam fidei conditionem & possint & velint implere, imo ut de facto infallibiliter impleant.*’ 위의 인용에서 다브넛트의 라틴어 원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였던 조사이어 알포트(Josiah Allport)는 ‘*ut praedictam fidei conditionem & possint & velint implere*’를 ‘믿음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the ability and will to fulfil the aforesaid condition of faith)’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브넛트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능력과 의지도 은혜 언약의 일부라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은혜 언약은 속죄의 적용을 포함한다.

52 Davenant, ‘De Morte Christi’, 105;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197; Colossians [2:555-556]; Moore, *The Extent of the Atonement*, 143.

53 Davenant, ‘De Morte Christi’, 105

무시함으로 인해 복음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셨다.”⁵⁴ 이어서 두번째 주제의 여섯번째 아티클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반적인[보편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혹은 구원하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나 언약은 아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완전한 자유에 달려 있는 것이다.”⁵⁵ 다브네프트의 글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영국 총대들의 의견서에서도 택자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조건적이고 복음적인 언약의 선포가 모두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브네프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가능한(applicable) 치료제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특별하고도 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speciali & impromerita gratia*)”로 구원받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신”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⁵⁶ 정리하자면, 필자가 서두에 이중적인 언약(*pactum duplici*)이라고 표현했던 다브네프트의 언약신학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될 수 있다.

-
- 54 *Acta Synodi Nationalis*, II: 79-80; Davenant et al., *The Collegiat Suffrage*, 49-50. ‘Christ by his death not onely established the euangelicall covenant, but moreover obtained of his Father, that wheresoever this Covenant should bee published, there also, together with it ordinarily such a measure of supernaturall grace should bee dispensed, which may suffice to convince all impenitents and unbelievers of contempt, or at least of neglect, in that the condition was not fulfilled by them.’
- 55 *Acta Synodi Nationalis*, II: 79-80; Davenant et al., *The Collegiat Suffrage*, 53. ‘Notwithstanding this generall [or universal] Covenant of saving those that beleieve, God is not tyed by any covenant or promise to afford the Gospel, or saving grace, to all and every one. But the reason why hee affords it to some, and passeth by others, is [or depends on] his owne mercie and absolute freedome.’
- 56 Davenant, ‘De Morte Christi’, 21; Davenant,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41; Colossians [2:365].

언약의 종류	언약의 성격	
조건적인(복음적인) 언약 (Conditional Evangelical Covenant)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자연 언약(Covenant of Nature): 율법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 복음
절대적인 언약 (Absolute Covenant)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림1.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의 구조

다브네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과 구별시켰다. 절대적인 언약은 다브네프가 종종 새 언약(New Covenant)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절대적인 언약은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다브네프는 이것을 복음적인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 조건적인 언약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복종을 조건으로 자연 언약을 맺으셨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다브네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조건적인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택자들이다. 이러한 다브네프의 언약신학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하였다. 과연 다브네프의 언약신학이 아미랄두스 주의자들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존 카메론의 언약신학과 흡사한지를 분별하기 위해 카메론의 언약 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3. 존 카메론의 삼중적인 언약

존 카메론(John Cameron)은 1579년에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Glasgow)에서 태어났다.⁵⁷ 글라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다가 카메론은 1600년에 프랑스의 보르두(Bordeaux)에 가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가르쳤다.⁵⁸ 그리고 카메론은 1605년에 파리와 제네바에서 공부하였는데, 특히 제네바에서 카메론은 당시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의 후계자였던 장 디오다티(Jean Diodati)와 테오도르 트로신(Theodore Trochin)의 가르침을 받았다.⁵⁹ 1608년 말에 카메론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공부했다.⁶⁰ 거기서 카메론은 *De Triplici Dei cum Homine Foedere Theses* 라는 논문을 썼다.⁶¹ 언약신학에 관한 논문은 사무엘 볼튼(Samuel Bolton)에 의해

57 H. M. B Reid, *The Divinity Principals in the University of Glasgow, 1545-1654*, (Glasgow: J. Maclehoose and Sons, 1917), 170. 존 카메론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전기는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루이 카펠에 의해 기록되었다. Cappel, Louis, ed., *Ioh. Cameronis S. Theologiae in Academia Salmuriensi Quondam Professoris, Praelectionum, in selectiora quaedam Novi Testam. loca, Salmurii habitatum, Tomus Primus. In quo habetur Explicatio celebris loci, qui est Matth. XVIII. vers. 15 si frater tuus in te peccaverit, &c. dic Ecclesiae, &c. una cum integro & pleno Tractatu De Ecclesia* (Saumur: Claude Girard & Daniel de Lerpinière, 1626), 2'-2'을 보라.

58 Reid, *The Divinity Principals*, 172-173.

59 Bonet-Maury, 'John Cameron', 327; Richard A.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John Cameron and the Early Orthodox Development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1 January 2006), 13.

60 Axel Hilmar Swinne, *John Cameron, Philosoph und Theologe (1579-1625): bibliographisch-kritische Analyse der Hand- und Druck- schriften, sowie der Cameron-Literatur*. (Marburg: N. G. Elwert Verlag, 1968), 29. 스위니(Swinne)는 카메론이 제네바에서의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하이델베르크에 갔다고 주장한다. 스위니(Swinne)의 연구에 따르면 카메론의 이름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1608년 재학생 명단에 분명히 올라와 있다.

61 Swinne, *John Cameron*, 27; John Cameron, *Ioh. Cameronis S. Tehologiae in Academia Salmvriensi Qvondam Professoris, Praelectionvm, in selectiora quaedam Novi Testam. loca, Salmurii habitatum* (vol. 3; Salmvrii: Sumptibus Cl. Girardi, & Dan. Lerpineris, 1628); John Cameron, 'De Triplici Dei' in *TA SZZOMENA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a* (Geneva: Petrus Chouët, 1658), 544-551. 카메론의 논문 *De Triplici Dei*의 마지막 부분에 "Heidelbergae, pridie Nonas April. Anno 1608"라고 기록되어 있어

영문으로 번역되어 *The Bounds of Christian Freedom* 이라는 저서에 “Certain Theses or the Positions of the Learned John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of God With ma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⁶² 레이드(H. M. B. Reid)는 카메론의 언약신학에 관한 논문에서 “알미니안 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리차드 물러는 그 논문에 기록된 카메론의 삼중적인 언약에 관한 입장은 전혀 이단적이지 않고, 오히려 초기 정통 개혁파 신학의 발전의 대표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한다.⁶³

카메론의 삼중적인 언약(*De Triplici Dei*)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카메론도 다브넛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으로 구별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메론은 절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그분의 택자들에게 믿음과 견인(perseverance)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response)”이라고

서 이 논문이 160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스윈니(Swinne)가 언급했듯이, 사실상 카메론의 죽음 이후에 1628년에 그의 *Praelectiones* 제3권에서 출판되었고, 그 후에 아미로(Moïse Amyraut)와 카펠(Louis Cappel)에 의해서 1642년에 *Opuscula Miscellanea*에 다시 출판되었다.

- 62 John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of God with man’ in *The True Bounds of Christian Freedom Or a Treatise wherein the rights of the law are vindicated, the liberties of grace maintained: and the several late opinions against the law are examined and confuted*, in Samuel Bolton, ed. (London: Printed, for P.S. and are to be sold by Austin Rice at the three Hearts at the west end of Pauls., 1656), 353-401; Reid, *The Divinity Principals*, 174; Leslie Armour, ‘Reason, Culture and Religion: Some Thoughts on the Foundations of the Calvinist “Heresies” of John Cameron and His Successors at Saumur’, *Anglophonia: French Journal of English Studies* 17 (2005), 150 n.13. 레슬리 아무르의 연구에 따르면, 카메론의 언약신학에 관한 논문의 영문 번역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63 Reid, *The Divinity Principals*, 175;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안상혁은 카메론과 아미로의 삼중적인 언약 체계가 “개혁파 전통 안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첫번째 이유는 그들의 삼중적인 언약 체계가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훼손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내산 언약의 영적이며 복음적 기능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경기도 수원: 영음사, 2014), 65를 참고하라.

말했다.⁶⁴ 카메론의 입장에 따르면, 절대적인 언약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시거나 수행하시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건적인 언약은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⁶⁵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말하기를, “카메론의 절대적인 언약은 단면적(one-sided)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즉, 언약의 수혜자의 능력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적인 언약은 언약을 맺는 양 편 모두가 의무를 이행할 때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쌍방적이고 가설적인 계약(mutually hypothetical contract)이다.”⁶⁶

카메론은 1620년에 있었던 다니엘 틸레누스(Daniel Tilenus)와의 토론의 내용을 담은 *Amica Collatio*라는 저서를 집필했다.⁶⁷ 이

64 Cameron, *De Triplici Dei*, 544; 절대적인 언약에 관한 카메론의 말의 원문은: ‘*Huius generis Foedus est quo promittit Deus sese Electis suis fidem & perseuerantiam daturum*’이고, 조건적인 언약에 관한 카메론의 말은 다음과 같다: ‘*grauitam quidem Dei promissionem, cum restipulatione tamen sed officij, quod alioqui, etiam nulla tanta intercedente promissione, & a Deo exigi potuisset, & a creatura (siquidem sic vellet Deus) praestari debuisset.*’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3-354; Armour, ‘Reason, Culture and Religion’, 151. 아무르네는 카메론의 조건적인 언약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약속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는 조건이 동반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협력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없지만 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요구되는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피조물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언약’이라고 말했다. (the free promise of God, yet with the restipulation of our duty, which otherwise, though there were no such intervening promise, it might both be required of God, and also (if it so pleased God) ought to be performed of the creature.)’

65 Cameron, *De Triplici Dei*, 544;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5.

66 Jürgen Moltmann, ‘Präedestination und Heilsgeschichte bei Moyse Amyraut’,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65, no. 3 (1953), 276-277. ‘1. Das “foedus absolutum”, das einseitig und bedingungslos ohne Rücksicht auf die Qualität des Partners gesetzt wird, und 2. Das “foedus hypotheticum”, ein partnerschaftlich hypothetisches Vertragsverhältnis, das erst rechtskräftig wird, wenn die Gegenverpflichtung erfüllt ist.’ 독일어 문헌과 불어 문헌의 번역에 도움을 주신 Highland Theological College 도서관 보조 사서, 쇼나 길리스(Shona Gilles)에게 감사를 드린다.

67 Bonet-Maury, ‘John Cameron’, 336; Michel Nicolas, *Histoire de l’ancienne Académie protestante de Montauban (1598-1659) et de Puylaurens (1660-1685)*. (Montauban: impr. et lithographie E. Forestié, 1885), 158; Swinne, *John Cameron*, 38. 당시에 세단 아카데미(Sedan Academy)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다니엘 틸레누스(Daniel Tilenus)는 요하네스 코르비누스(Johannes Arnoldi Corvinus)의 저서의 영향을 받아 알미니안 입장으로 전향한

저서에서 카메론은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먼저 카메론은 틸레누스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카메론은 “절대적인 거절”과 “상대적인 거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의 (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믿음과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⁶⁸ 앞서 언급한 카메론의 논문 *De Triplici Dei*라는 제목 때문에 독자들은 카메론이 처음부터 오직 세 종류의 언약들을 언급하며 주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상 세 가지의 언약들은 카메론이 일곱번째 테제(thesis)에서 조건적인 언약을 설명할 때 등장한다. 이에 대해 물러는 “카메론의 논문의 저술 목적이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가설적인) 언약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⁶⁹

카메론은 조건적인 언약을 자연 언약(*foedus naturae*), 은혜 언약(*foedus gratiae*), 그리고 옛 언약 혹은 종속된 언약(*foedus vetus* or *foedus subserviens*)로 구분지었다.⁷⁰ 다브네프와는 다르게 카메론은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옛 언약을 덧붙였다. 물러가 지적하였듯이, 카메론은 조건적인 언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은혜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후로 존 카메론과 루이 카펠에게 은혜와 자유 선택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1620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토론이 진행되었고 토론 도중에 틸레누스가 개인사정으로 파리로 급히 가게 된 후로는 문서로 토론이 진행되다가 곧 그 토론의 내용이 “*Amica Collatio de Gratiae et Voluntatis Humanae Concursu in Vocatione*”라는 제목으로 집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 선택에 관한 카메론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8 John Cameron, *Amica Collatio De Gratiae Et Voluntatis Humanae Concursu In Vocatione & Quibusdam Annexis, Instituta Inter cl. V. Danieleum Tilenum et Johannem Cameronem* (Saumur: Lvgdvi Batavorvm Sumptibus Benedicti Mignonii, 1622), 59-60.

69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28

70 Cameron, *De Triplici Dei*, 544;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6.

하였다.⁷¹ 카메론의 논문, *De Triplici De*에 따르면 자연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⁷²

구분기준	차이		
	자연 언약 (Covenant of Nature)	옛 언약 (Old Covenant)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목적(Special end)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	하나님의 자비의 선포
근거 (Foundation)	인간의 창조와 인간 본성의 진실성	출애굽에 의한 구원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속
언약 당사자들의 의무 (Quality and manner of the covenanting parties)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순전하고 완벽하기를 요구하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함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심
조건 (Stipulation)	본성적인 의로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오직 믿음
약속 (Promise)	에덴의 영원하고 복된 생명이 약속됨	가나안의 복이 약속됨	천상의 영적인 생명이 약속됨
승인 방법 (Manner of sanction or ratification)	중보자가 없고 언약이 선포되기 전에는 약속되지 않음	모세가 중보자가 됨	언약이 약속되고 오랜 시간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이 선포됨

그림2. 카메론의 언약 신학의 구조 및 특징

71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28.

72 Cameron, *De Triplici Dei*, 544, 549;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7-358, 382-384. 위의 도표는 카메론의 입장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카메론과 아미로의 삼중 언약 체계를 도식화한 피터 윌러스(Peter Wallace)의 도표는 안상혁, 『언약신학』, 65를 참고하라.

카메론의 언약 신학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번째로, 카메론은 은혜 언약과 자연 언약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한다. 먼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점, 그리고 양 쪽의 언약들 모두가 본성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⁷³ 반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자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인 반면에, 은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다. 또한 자연 언약의 조건은 “본성적인 의로움(*justitia naturalis*)”이지만, 은혜 언약의 조건은 “오직 믿음(*tantum fides*)”이다.⁷⁴ 카메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믿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우리의 것이 아님); 공의는 하나님의 쌍방적인 사랑 안에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이다.”⁷⁵ 카메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은 오직 “결과적으로(*by consequence*)” 구원하신다고 표현했다.⁷⁶ 즉, 아무르가 말했듯이, 인간의 불신의 결과는 끔찍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본성과 이성을 통해 길을 여신다”는 의미이다.⁷⁷ 자연 언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빛을 졌으나, 은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reconciliation*)을 볼 수 있다.⁷⁸

73 Cameron, *De Triplici Dei*, 544;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7.

74 Cameron, *De Triplici Dei*, 544-545;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7-358.

75 Cameron, *De Triplici Dei*, 545;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8; Armour, ‘Reason, Culture and Religion’, 151. ‘*Iustitia autem & Fides differunt ut Dare & Accipere, nam Iustitia Deo dat, Fides accipit, Iustitia sit a est in mutuo amore Dei, Fides in persuasione de amore Dei.*’ 아무르(Armour)는 위에 언급된 카메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계시를 통해 설득하신다”고 설명을 덧붙이며 이것이 “본성(nature)과 계시(revelation)의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였다.

76 ‘*Deum non stipulatum esse ab homine Fidem nisi ex consequenti.*’ See Cameron, *De Triplici Dei*, 545;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58.

77 Armour, ‘Reason, Culture and Religion’, 151.

78 Cameron, *De Triplici Dei*, 544;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60.

다시 말하면, 자연 언약에 따르면 “공의의 법정(Court of justice)”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질문을 받고 의인들은 구속되고, 불의한 자들은 정죄를 당한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에 따르면 “자비의 법정(Court of mercy)”에서 그리스도를 믿는지 질문을 받고 믿는 자들이 구속을 받는다.⁷⁹

두번째로, 카메론은 자연 언약과 옛 언약 혹은 종속적인 언약(*foedus subserviens*)을 비교하였다.⁸⁰ 두 가지 언약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고, 모두 조건이 있으며,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⁸¹ 그러나 두 언약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⁸² 자연 언약의 목적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바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에 인간은 “부드럽게(*suaviter*)”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약을 지킨다.⁸³ 즉, 카메론은 타락 전 언약(*prelapsarian covenant*)인 자연 언약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여 언약을 지킨다고 강조하였다.⁸⁴ 그러나 타락 후 언약(*postlapsarian covenant*)인 옛 언약에 따르면 인간은 율법에 종속되어(*servitutem*)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킨다. 따라서 옛 언약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⁸⁵ 마크 존스가 말했듯이, 이분론자의 입장(*dichotomist*

79 Cameron, *De Triplici Dei*, 544;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61.

80 Cameron, *De Triplici Dei*, 548;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1-382. *'Foedus subserviens a nobis appellatum sit, paene eodem sensu quo a Spiritu Sancto Vetus appellatur, non quia prius (ut nonnulli hariolantur) sed quia a inueterascere, & succedenti praestantiori foederi decedere, denique aboleri debuit.'* 카메론이 모세의 언약(Mosaic Covenant)을 ‘종속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더 좋은 언약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그것 자체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81 Cameron, *De Triplici Dei*, 548;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2.

82 Cameron, *De Triplici Dei*, 548;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3-384. 카메론은 46번째 테제(thesis)에서 자연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13가지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두 가지만 기록하겠다.

83 Cameron, *De Triplici Dei*, 548;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3.

84 Armour, ‘Reason, Culture and Religion’, 151.

85 Cameron, *De Triplici Dei*, 548;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4.

view)과는 다르게 카메론은 “옛 언약을 믿음의 삶보다는 믿음을 위한 준비로” 여겼던 것이다.⁸⁶

4. 다브네프와 카메론의 언약 신학 비교 및 대조

다브네프와 카메론의 언약 신학 구조에는 몇 가지 흡사한 점들이 있다. 첫째로, 카메론처럼 다브네프도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브네프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절대적인 언약에 따라서 택자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카메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조건적인 언약 아래에서 언약의 당사자 모두가 그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몰트만이 지적했듯이, “(카메론에게) 두 언약들은 서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공의와 자비라는 도덕적인 성격(moral character)을 가진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free act of God)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God’s work of salvation)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⁸⁷

두번째로, 다브네프처럼 카메론도 복음적인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카메론의 *Amica Collatio*에서 텔레누스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는지를 물었을 때, 카메론은 “복음적인 언약(*foedere Evangelico*)”의 두 가지 측면인 “약속과 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사도에 의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지가

⁸⁶ Mark Jones, ‘The “Old” Covenant’, in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eds.,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195.

⁸⁷ Moltmann, ‘Prädestination und Heilsgeschichte bei Moyse Amyraut’, 277-278.

설명되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서 언약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인지를 볼 수 있다.”⁸⁸ 이와 같이 다브네프트와 카메론 모두 복음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조건이 있는 언약인 동시에 조건의 성취는 절대적인 언약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적인 언약에 대한 다브네프트와 카메론의 견해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브네프트는 이분론자(dichotomist)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카메론은 삼분론자(trichotomist)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⁸⁹ 특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브네프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다브네프트에게 구약(old covenant)은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단지 옛 언약 아래에서 언약의 표시는 할례였으나 새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표시는 세례가 되었다. 그러나 카메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문 *De Triplici Dei*에서 카메론은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마음에 입양의 영(Spirit of adoption)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며, “구약에서 성령의 일하는 방식(modus)은 신약에서의 방식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⁹⁰ 칭의 교리에 있어서 다브네프트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 하지만 다브네프트는 성화에 있어서 율법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88 Cameron, *Amica Collatio*, 48. *'Nempe cum in foedere Euangelico duo sint, promissio & conditio, exponendum Apostolo fuit primo loco cur obtingat promissio potius his quam illis; posteriori unde fiat ut implendae conditionis gratia his obveniat potius quam illis.'*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it is to be explained by the apostle, in the first place, why the promise *should be made* with this rather than that; second, *from where it might happen* that the fulfilment of the condition should be wrought by grace in this rather than in that.'

89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과 사무엘 볼튼(Samuel Bolton)과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도 카메론과 동일한 '삼분론자(trichotomist)'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nes, 'The "Old" Covenant', 194-199을 참고하라.

90 Cameron, *De Triplici Dei*, 549a; Cameron,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387; Jones, 'The "Old" Covenant', 196.

때문에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엄격하게 나누어 적용하지는 않았다.⁹¹ 반면에 카메론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하였지만, 율법의 시간보다 복음의 시간에 우위를 두어 강조하였다.⁹²

이미 살펴보았듯이, 카메론의 자연 언약, 옛 언약, 은혜 언약과 같은 “삼중적인(threefold)” 언약은 조건 적인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다. 삼중적인 언약을 쉽게 표현한 한 가지 예로, 1610년 12월에 루이 카펠(Louis Cappel)에게 쓴 편지에서 카메론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본성에 새겨진 율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선포로 부르신다”고 기록했다.⁹³ 다브네프의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성된 “이중적인(twofold)” 언약도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복종을 조건으로 자연 언약(covenant of nature) 아래에 있지만, 택자들은 믿음을 조건으로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 아래에 있다. 그러나 택자들에게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로 인해서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 다브네프에게, 옛 언약은 은혜 언약 아래에 속해 있지만, 카메론은 옛 언약을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부터 구별하였다.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의 견해에 따르면, 카메론의 율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⁹⁴ 즉, 카메론의 옛 언약에 따르면,

91 Davenant, *De Justitia*, 319; Davenant, *A Treatise on Justification*, 1: 170-171. 칭의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다브네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구원의 요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 있다.’ 다브네프는 성화가 구원의 길(way)이라고 여기며 말하기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92 Cameron, *De Triplici Dei*, 549a; Jones, ‘The “Old” Covenant’, 199.

93 John Cameron, ‘Iohannes Camero L.C.S.P. In Christo Iesu’ in *Τα Σωζόμενα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a* (Geneva: Petrus Chouët, 1658), 531b. ‘Deus...vocat omnes ad penitentiam, alios lege naturae, hos lege scriptâ, hos Euangelij praedicatione.’

94 Francisco Turretino,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Geneva: Apud Samuelem de

시내산 언약의 증보자는 오로지 인간 모세일 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발견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징계하고 의를 인정하실 뿐이고 율법 언약의 주된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보다는 우리를 단지 속박하는 것이다.⁹⁵

III. 결론

지금까지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브네프트의 언약 신학은 아미탈두스 주위의 시조라고 불리웠던 존 카메론의 언약 신학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다브네프트가 17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가설적 보편구원론자들(*les hypothetiques*)”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편적인 속성과 제한적인 속성이 모두 있다고 주장한 다브네프트의 입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복음적인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새 언약 혹은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택자들은 절대적인 언약 안에서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저항하여 멸망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신다.

다브네프트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voluntas precept vel signi*)이 있고, 하나님이 숨기신 뜻(*voluntas beneplaciti*

Tournes, 1682), II: 286. ‘An foedus legale sinaiticum, quod per Mosem cum populo israelitico sancitum est in monte sinai, fuerit tertium aliquod foedus specie distinctum a foedere naturae & gratiae? Neg. ... IV. Cum foedre Gratiae convenit ... Hoc vero cum spontanea inclination. Vid. Camer. Thes. De Triplici Foedere.’

95 안상혁, 『언약신학』, 65.

vel decreti)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⁹⁶ 그분의 드러내신 뜻은 복음적인 언약에 따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근거하여 아무런 실패없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따라서 다브네프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에 근거한 말이고, 조건적인 언약 혹은 복음적인 언약에 근거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이라는 가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브네프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가 달라진다.

만약 다브네프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의 입장은 도르트 총회의 항론파(Remonstrant)의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수 없다고 믿었다면, 17세기 초의 개혁파의 입장과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다. 존 다브네프는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하게 하실 때,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인간의 마음(mind)을 밝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중생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도 변화시키신다고 믿었다.⁹⁷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mind)을 먼저 조명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의지(will)를 설득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 선택(free choice)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카메론의 입장과 비교하면 다브네프의 입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⁹⁸ 다브네프가 언급한 하나님의

96 Davenant, *Ad Colossenses*, 145; John Davenant, *Animadversions written by the Right Reverend Father in God John, Lord Bishop of Salisbury, upon a Treatise intituled Gods love to Mankind* (London: John Partridge, 1641), 306.

97 The Synod of Dort, *Iudicium Synodi Nationalis*, 60-61;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택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중생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셔서 (*voluntati novas qualitates infundit*) 강박한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신다”는 도르트 신경 3, 4 주제의 11번째 항에 대해서 다브네프는 ‘*Johannes Davenantius* 라는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인간의 자유 선택에 관한 다브네프의 입장은 필자의 소논문, ‘존 다브네프의 인간의 자유 선택 이해,’ 『한국개혁신학』 제65권(2020), 185-218을 참고하라.

98 Cameron, *Amica Collatio*, 53-55, 65. 카메론은 그의 저서에서 회심에 있어서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physical ability)과 윤리적인 무능력(moral inability)을 구별하였다. 그래서 그는 라이덴 대학(Leiden University)의 신학 교수들로부터 인간의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은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택자들을 회심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언약이 실패없이 성취되게 하신다.

더 나아가 다브네프의 언약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복음적인 언약에 따라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중하고(serious) 실제적인(real) 외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복음의 요청은 복음적인 언약(evangelical covenant)의 선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의지에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아니라 정말로(true and proper causality) 그 의지를 새롭게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카메론은 자신의 저서를 수정하라는 그들의 요청을 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John Cameron, 'Epistola Facultatis Theologicae Academiae' in *TA ΣΩΖΟΜΕΝΑ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a* (Geneva: Petrus Chouët, 1658), 709a- 709b를 참고하라.

[참고문헌]

-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V CHRISTI, Autoritate ILLVSTR. ET PRAEPOTENTVM DD. ORDINVM GENERALIVM FOEDERATI BELGII PROVINCIIARVM, DORDRECHTI HABITAE ANNO 1618 ET 1619. Accedunt Plenissima, de Quinque Articulis, Theologorum Judicia. LVGDVNI BATAVORVM: Typis ISAACI ELZEVIRI, Academiae Typographi, Societatis DORDRECHTANAE sumptibus, 1620.*
- Allport, Josiah. 'Life of Bishop Davenant',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5.
- Armour, Leslie. 'Reason, Culture and Religion: Some Thoughts on the Foundations of the Calvinist "Heresies" of John Cameron and His Successors at Saumur'. *Anglophonia: French Journal of English Studies*. Protestantisme(s) et autorite 17 (2005), 147-162.
- Armstrong, Brian G. *Calvinism and the Amyraut Heresy: Protestant Scholasticism and Humanism in Seventeenth-Century France*.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96.
- Bonet-Maury, Gaston. 'John Cameron: A Scottish Protestant Theologian in France (1579-1625)'. *The Scottish Historical Review* 7, no. 28 (1910), 325-345.
- Cameron, John. *Amica Collatio De Gratiae Et Voluntatis Humanae Concursu In Vocatione & Quibusdam Annexis, Instituta Inter cl. V. Danielelem Tilenum et Johannem Cameronem*. Saumur: Lvgdvni Batavorvm Sumptibus Benedicti Mignonii, 1622.
- _____. 'Concerning the three-fold Covenant of God with man' in *The True Bounds of Christian Freedom Or a Treatise wherein the rights of the law are vindicated, the liberties of grace*

maintained: and the several late opinions against the law are examined and confuted. ed. Samuel Bolton. London: Printed, for P.S. and are to be sold by Austin Rice at the three Hearts at the west end of Pauls., 1656.

_____. 'De Triplici Dei' in *TA ΣΩΖΟΜΕΝΑ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e.* Geneva: Petrus Chouët, 1658.

_____. 'Epistola Facultatis Theologicae Academiae' in *TA ΣΩΖΟΜΕΝΑ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e.* Geneva: Petrus Chouët, 1658.

_____. *Ioh. Cameronis S. Theologiae in Academia Salmvriensi Quondam Professoris, Praelectionvm, in selectiora quaedam Novi Testam. loca, Salmurii habitarum* vol. 3; Salmvrii: Sumptibus Cl. Girardi, & Dan. Lerpineris, 1628.

_____. 'Iohannes Camero L.C.S.P. In Christo Iesu' in *Τα Σωζομενα Sive Opera Partim Ab Auctore Ipso Editata, Partim Post Ejus Obitum Vulgata, Partim Nusquam Hactenus Publicata, Vel E Gallico Idiomate Nunc Primum in Latinam Linguam Translata.* Geneva: Petrus Chouët, 1658.

_____. *Praelectionni in Selectiora Quaedam Novi Testamenti Loca, Salmurii Habitarum* vol. 3; Salmurii: Sumptibus Cl. Girardi, & Dan. Lerpineris, 1628.

Cappel, Louis, ed. *Ioh. Cameronis S. Theologiae in Academia Salmvriensi Quondam Professoris, Praelectionum, in selectiora quaedam Novi Testam. loca, Salmurii habitarum, Tomus Primus. In quo habetur Explicatio celebris loci, qui est Matth. XVIII. vers. 15 si frater tuus in te peccauerit, &c. dic Ecclesiae, &c. una cum integro & pleno*

Tractatu De Ecclesia. Saumur: Claude Girard & Daniel de Lerpinière, 1626.

Clifford, Alan C. 'Amyraldian Soteriology and Reformed-Lutheran rapprochement' in *From Zwingli to Amyraut: Exploring the Growth of European Reformed Traditions*. eds. Jon Balsarak and Jim West. Tüb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Crisp, Oliver D. *Deviant Calvinism: Broadening Reformed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14.

Davenant, Edward. 'Oxford Exeter College MS 48'. Dordrecht, 1618.

Davenant, John. *A Dissertation on the Death of Christ*. Weston Rhyn: Quinta Press, 2006.

_____. *A Treatise on Justificatio*. Trans. Josiah Allport. London: Hamilton, Adams, 1844.

_____.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Trans. Josiah Allport. vol. I; London: Hamilton, Adams and Company, 1832.

_____.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5.

_____. *Animadversions written by the Right Reverend Father in God John, Lord Bishop of Salisbury, upon a Treatise intituled Gods love to Mankind*. London: John Partridge, 1641.

_____. 'De Morte Christi', in Thomas Bedford, ed., *Dissertationes Duæ: Prima de Morte Christi, quatenus ad omnes extendatur, quatenus ad solos Electos restringatur. Altera de Prædestinatione & Reprobatione ... Quibus Subnectitur Ejusdem D. Davenantii Sententia de Gallicana Controversia: Sc. de Gratiiosa & Salutari Dei Erga Homines Peccatores Voluntate*. Cambridge: Roger Daniel, 1650.

_____. 'Disputatio de justitia habituali et actuali' in *Praelectiones de duobus in Theologia controversis capitibus de Indice*

Controversiarum. Cambridge, 1631.

_____. 'Doctour Davenant Touching the Second Article, Discussed at the Conference at the Haghe of the Extent of Redemption', in Anthony Milton, ed.,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_____. *Expositio Epistolae D. Pauli Ad Colossenses*. Cantabrigiae: Buck, 1639.

_____. 'On the Controversy Among the French Divines' in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ed. Anthony Milton.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_____. 'On the Controversy Among the French Divines of the Reformed Church Concerning the Gracious and Saving Will of God Towards Sinful Men' i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Trans. Josiah Allport. vol. II. London: Hamilton, Adams, 1831.

_____. *One of the Sermons Preached at Westminster*. London: Richard Badger, 1628.

Davenant, John, George Carleton, Samuel Ward, Thomas Goad, and Walter Balcanquall. *The Collegiat Suffrage of the Divines of Great Britaine, Concerning the Five Articles controverted in the Low Countries. Which Suffrage was by them delivered in the Synod of Dort, March 6 Anno 1619. Being their vote or voice foregoing the joint and publique judgment of that Synod*. London: Printed for Robert Milbourne, 1629.

Davenant, John, Samuel Ward, George Carleton, Thomas Goad, and Walter Balcanquall. 'MS Rawlinson C849'. Dordrecht, 1619.

Godfrey, W. Robert. 'Tensions within International Calvinism: The Debate on the atonement at the Synod of Dort, 1618-1619' Ph.D. Stanford University, 1974.

Haykin, Michael A. G., and Mark Jones, eds. *Drawn Into Controversie:*

-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ed., Ernst Bizer. Trans., G. T. Thomson. Twin brooks se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 Hildebrand, Herman. *Orthodoxa Declaratio Articulorum Trium: De Mortis Christi Sufficientia et Efficacia, Reprobationis Causa Meritoria, Privata Denique Communione, Conscio & instante venerando ministerio Bremensi, pro sopiendis inter quosdam collegat hinc exortis controversiis concepta, & in eodem collegio ann. 1639. d. 4, & 3*. Bremae: Typis Bertholdi Villieriani, 1642.
- IVDICIVM SYNODI NATIONALIS, REFORMATARVM ECCLESARVM BELGICARVM, habitae DORDRECHTI, Anno 1618. & 1619. Cui Etiam ineterfuerunt plurimi insignes Theologi Reformatarum Ecclesiarum, Magnae Britanniae, Palatinatus Electoralis, Hassiae, Helvetiae, Correspondentiae Wedderavicae, Genevensis, Bremensis, & Emdanae, DE QUINQUE DOCTRINAE Capitibus in Ecclesiis Belgicis Controversis*. Dordrecht: Apud Iohannem Berewout, & Franciscum Borsalaer, Socios Isaci Canini, 1619.
- Jones, Mark. 'The "Old" Covenant', in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eds.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Kang, Hyo Ju. 'John Davenant, a Champion of the "Via Media" at the Synod of Dort?', *Journal of Academic Perspectives* 2017, no. 3 (2017).
- Lynch, Michael J. 'Richard Hooker and the Development of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in Scott N. Kindred-Barnes and W. Bradford Littlejohn eds. *Richard Hooker and Reformed Orthodoxy*.

-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 _____. *John Davenant's Hypothetical Univers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Milton, Anthony. ed.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 _____. 'The Collegiat Suffrage of the Divines of Great Britaine, Concerning the Five Articles Controverted in the Low Countries Which Suffrage Was by Them Delivered in the Synod of Dort, March 6. Anno 1619', *The British Delegation and the Synod of Dort (1618-1619)*. Woodbridge, Suffolk: Boydell & Brewer, 2005.
- Moltmann, Jürgen. 'Prädestination und Heilsgeschichte bei Moyse Amyraut',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65, no. 3 (1953), 270-303.
- Moore, Jonathan D.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John Preston and the Softening of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7.
- _____. 'James Ussher's Influence on the Synod of Dordt', in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Leiden, Boston: BRILL, 2010.
- _____. 'The Extent of the Atonement: English Hypothetical Universalism versus Particular Redemption'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eds.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Muller, Richard A. 'Dating John Davenant's De Gallicana controversia sententia in the Context of Debate over John Cameron: A Correc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50 (2015), 10-22.
- _____. 'Davenant and Du Moul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12.

_____.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John Cameron and the Early Orthodox Development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1 January 2006), 11-56.

Nicolas, Michel. *Histoire de l'ancienne Académie protestante de Montauban (1598-1659) et de Puylaurens (1660-1685)*. Montauban: impr. et lithographie E. Forestié, 1885.

Reid, H. M. B. *The Divinity Principals in the University of Glasgow, 1545-1654*. Glasgow: J. Maclehose and Sons, 1917.

Roberts, Jonathan. 'The Nature of God & Predestination in John Davenant's *Dissertatio De Preadestinatione et Reprobatione*'. Master of Arts in Philosophy.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2017.

Swinne, Axel Hilmar. *John Cameron, Philosoph und Theologe (1579-1625): bibliographisch-kritische Analyse der Hand- und Druck-schriften, sowie der Cameron-Literatur*. Marburg: N. G. Elwert Verlag, 1968.

Van Stam, Frans Pieter. *The Controversy over the Theology of Saumur, 1635-1650: Disrupting Debates among the Huguenots in Complicated Circumstances*. Amsterdam & Maarssen: APA-Holland University Press, 1988.

Voetius, Gisbertus. *Gisberti Voetii Theologiae in Acad. Ultrajectina Professoris, 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Pars Secunda*. Ultrajectina: Johannem a Waesberge, 1655.

강효주. '존 다브네프의 인간의 자유 선택 이해.' 『한국개혁신학』 65(2020), 185-218.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경기도 수원시: 영음사, 2014.

[Abstract]

**John Davenant's view on the covenant of Go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the atonement**

Hyo Ju Kang

(Jeong-sang English Academy, Lecturer, Church History)

This paper examines John Davenant's view on the covenant of Go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the atonement. Some modern scholars have stated that John Davenant's position on the extent of the atoning sacrifice of Christ was in line with Amyraldianism. In this paper, Davenant's view on covenant is compared with John Cameron's position which greatly influenced Amyraldianism. Davenant, like Cameron, maintained that there was an absolute covenant mad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re is another covenant, which is conditional, made between God and humanity. For Davenant, there is a twofold covenant in the conditional covenant. One is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 other is the covenant of nature. Davenant's notion of the covenant of nature was equivalent to what was later known as the covenant of works. However, Cameron's view on the conditional covenant was clearly distinct from Davenant's. Cameron held to a threefold covenant when expounding the conditional covenant. Alongside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 covenant of nature, he stressed the old (subservient) covenant. Davenant's dichotomist view emphasized the continuit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ereas Cameron's trichotomist stresse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For Davenant, the old covenant belongs to the covenant of grace,

whereas Cameron distinguished the old covenant from both the covenant of nature and the covenant of grace. Although Cameron's view on covenant was not heretical, Davenant's position more firmly stands within the confessionalism of the Canons of Dort.

Key Words: John Davenant, John Cameron, Covenant Theology, Extent of the Atonement, Synod of Dort, Predestination

